

# “亞 도자문화 선도...함께 빛나는 박물관 조성”

●최흥선 제13대 국립광주박물관장

### 내년 ‘도자문화관’ 건립 총력...박물관 차별화 전략 고민 신안해저문화유산 연구 성과 등 포괄...지역간 교류 강화

“오는 2025년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개관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구성원들과 힘을 모아 ‘함께 빛나는 박물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흥선(54·사진) 제13대 국립광주박물관장이 최근 취임,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돌입한 가운데 28일 취임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북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 관장은 마한에서 후백제 시대까지를 중심으로 한 호남 고고학 전문가다.

최 관장은 2020년 국립익산박물관 개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를 시작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과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관, 국립익산박물관 관장,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4년간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박물관 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의 역점 사업은 내년 2월 준공, 12월 개관 예정인 ‘도자문화관’의 성공적인 건립이다.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7천137㎡ 건물로, 3개의 전시실(한국도자실,新安해저문화유산실, 신기술융합전시실)과 소장품을 관리하는 수장고, 보존과학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 관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도자문화관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의 도자문화뿐 아니라 광주박물관의 대표 문화유산인 신안해저문화유산 연구 성과를 모두 포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 도자문



화의 교두보이자 도자문화를 선도하는 국립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관장은 “박물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아시아 도자문화교류 거점으로서 다른 지역 도자기 전문 박물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또한 필요하다”며 “우리 박물관만의 차별점을 살려 관람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광주박물관만이 가진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관장은 “우리 지역에는 고려시대 최고급 청자를 만들었던 강진 청자가마터를 비롯해 가깝게는 무등산 자락의 조선시대 충효동 분청사기, 신장동 유적을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적해있다”며 “여기에 중외 공인 특례사업 일환으로 조성 중인 테마별 공인 지구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광주박물관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4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해 온 광주박물관이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명진기자



서해해경청, 불법조업 단속 전술 토론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가을철 외국 어선 선어가 시작 시기에 맞춰 지난 24일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해경청 경비국장, 서해해경청과 관할 해양경찰서 담당과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 전술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매년 가을철이 되면 대한민국 서해 바다에서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외국 어선을 많이 볼 수 있다. 문제는 무허가 어업인과 일부 외국 어선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선박에 몰래 합류하거나 낚시가 좋지 않은 야간 시간대를 틈타 활동하는 점이다.

이에 서해해경청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항공기와 합정함 등으로 해·육상 단속을 전개하는 등 입체적 단속 강화 방안과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장대은 서해해경청 안전총괄부장은 “부단한 교육훈련과 실제 적용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여수해수청, 시설항로표지 관리실내 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8일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1일까지 여수 및 고흥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항로표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설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 이외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를 말한다. 여수해수청 관내에는 여수해양항만공사 등 6곳에서 3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을철 선어의 안전 조업을 위해 주요 항로에 설치된 시설항로표지의 등명기 점등 상태, 부유식 등부표의 위치 이탈 여부 및 도색 등 시설물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상교량, 풍향계측기 등 해양구조물에 대한 선박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구조물표지에 대해 점검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신속히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호진 여수해수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시설항로표지 현장의 고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항로표지 분야 규제 개선 사항과 항행 위해요소를 지속 발굴 및 해소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담양경찰, 노인대학 찾아 교통안전교육

담양경찰서는 28일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군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전남 노인대학 담양지회 노인대학에서 수강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교육은 담양군에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 분석, 보행 안전 3원칙(서다, 보다, 걷다) 등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책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고취했으며, 교통안전용품인 야광 지팡이와 야광조끼 등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권현오 담양경찰서장은 “어르신이어는 곳을 가더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총동창회 ‘의류 기부’ 봉사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회장 이정배)가 의류 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정배 회장과 집행부 및 임원진 10여명은 28일 오후 광주 이주민지원센터 찾아 회원들이 지난 10일부터 십시일반 모은 각종 의류 600여 점을 전달했다.

앞서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신상록어린이집에서 다른

회가정 어린이 초청 행사를 개최했으며, 7월에는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에서 급식 봉사를 했다.

이정배 회장은 “총동창회가 회원들의 친목 도모는 물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봉사에 큰 비중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력이 닿는 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 전남도, 민방위대 창설 49주년 기념식

전남도는 민방위대 창설 49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기념식에는 명장환 행정부지사, 22개 시·군·소방본부, 전남경찰청, 전남교육청, 31보병사단, 제1전투비행단, 제3함대, 서해해경청, 민방위 대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민방위대는 민간인이 주축이 돼 적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편성된 조직이다. 1975년 9월 지역 민방위대가 창설돼 지역의 각종 재난 사고 수습 및 복구 등에 앞장서고 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결의문 낭독, 축

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은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영광군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목포시·광양시·곡성군·장흥군이 전남지사 단체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단체와 개인 총 8명이 장관·지사 표창을 받았다.

명장환 부지사는 “민방위대는 국가와 지역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자 울타리로 최근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 민방위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민·군·경과 긴밀히 협력해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고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송원대-한국철도물류協, 철도 인재 양성 ‘맞손’

송원대학교는 28일 “전남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철도물류협회와 철도 인재 양성 및 정보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주요 내용에 ▲인재 양성과 정보·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철도 인재 육성 이슈에 대한 공동 활동 ▲기타 상호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세계적인 철도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송원대는 기관사, 관제사 양성을 중심으로 철도차량, 전기 기술전문가, 철도물류전문가 등의 육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수태 송원대 총장은 “한국철도물류협회와의 이번 협력이 중국, 러시아 등 대륙철도 진출을 위한 국제철도 물류전문가 육성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철도기술 함양과 더불어 여학 능력 등 국제화 역량 배양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대기기자

## 전남대병원 개원 114주년 기념식...새병원 조감도 공개

전남대병원은 28일 오전 전남대 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개원 114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 병원 조감도를 공개했다.

개원 기념식에는 정성택 전남대병원 이사장(전남대 총장), 정신 병원장, 박홍석 발전위원장, 국민의힘 김경현·김화진 광주시·전남도 당위원장 등 내빈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양부남·민형배·김원아 안도정·정준호·박균택·김민수 국회의원과 및 차단제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전남대병원은 기념식에서 새 병원 신규 조감도를 공개하고, ‘114년의 역사를 이어갈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원 기념 영상을 상영했다.

기념 영상에서는 최근 낙뢰 사고로 전남대병원에서 28일간 치료 후 기적적으로 생활한 교사를 완치시킨 사연이 소개돼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광주은행 곽병일 은행장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고, 의료진·직원·우수부서·유관기관 등에 감사패도 전달했다.

정신 병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형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 여수경찰,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여수경찰서는 28일 “지난 24일 서교동 서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 직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여수시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보행자 우선, 멈춤!’ 등의 주제로 교통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멈춰서! 살피고! 건너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여수 만들기’,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 등 구호를 통해 안전 운행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더불어 캠페인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



오른 허위영상물(딤페이크) 관련 교내 학생들과 함께 ‘딤페이크 멈춰!’라는 구호와 함께 경고 메시지를 알렸다. /여수=김진선기자

## 남부소방, 전국 첫 ‘소방차 LED 인식판’ 설치

광주 남부소방서는 28일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소방차량을 쉽게 식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 11대의 작전번호 인식판을 LED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작전번호는 소방차량의 소속과 번호를 함축해 지정한 것으로 소방차량 보닛이나 앞뒤 범퍼에 필름 시트지 또는 페인트로 도색돼 있다. 하지만 차량 하루 범퍼 등에 작게 표시돼 있어 원거리나 야간, 기상악화 시 쉽게 식별할 수 없어 현장지휘관의 지휘 통제와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남부소방서는 전국 최초로 소방차량 전면 상단부에 LED 작전번호 인식판을 설치해 날씨와 시간에 구애 없이 최소 50m 거리에서도 소방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률 남부소방서장은 “전국 최초로 설치한 LED형 소방차량 작전번호 인식판이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1분1초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운영을 통해 현장 활동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